The Strategy

LS Edge Investment Strategy | 투자코멘트 | 2026. 6. 8

20% 이상의 낙폭 가능: 저점 신호 대기

전략/퀀트 | **정다운** | dw.jung@ls-sec.co.kr

인플레이션과 금리 우려로 주가 급락

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. 지난 금요일(6/5) KOSPI 200 야간 선물은 하한가(-8%)를 기록했다. 트리거가 된 것은 5월 고용지표와 브로드컴(AVGO)의 실적 발표였다. 지난 금요일(6/5)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(비농업고용 17.2만명 증가)를 기록하면서 금리 상승 및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까지 자극했다. 브로드컴(AVGO)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탓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다.

이번 상승 사이클의 MDD(-10% / -20%)를 감안하면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이지만...

주가의 하락이 가파른 만큼,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. 이미 지난 6월 2일의 KOSPI 고점대비 하락 폭은 7.3%를 기록했다. 심지어 야간 선물의 하한가(-8%)만큼 KOSPI가 하락한다고 가정하면, 14.7%의 낙폭을 추정할 수 있다. 2025년부터 시작된 이번 KOSPI 상승 사이클에서는 전고점 대비 하락 폭 기준, 10~20% 수준에서 마무리 되어 왔다. 3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, -19.9%(3/31)의 MDD를 기록했다. 이외의 2025년 11월 24일 -8.9%, 2026년 5월 20일 -9.7%은 10% 안쪽에서 낙폭이 마무리 되는 모습을 보였다.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의 주가 하락 폭을 비춰 보면 야간선물 하한가를 반영한 금일(6/8)의 MDD -14.7%는, 매력적인 수준의 진입 시점이 될 것이다. 하지만 이번 상승 사이클의 낙폭 수준이 이번에도 동일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.

아직 관망할 시점이라 생각하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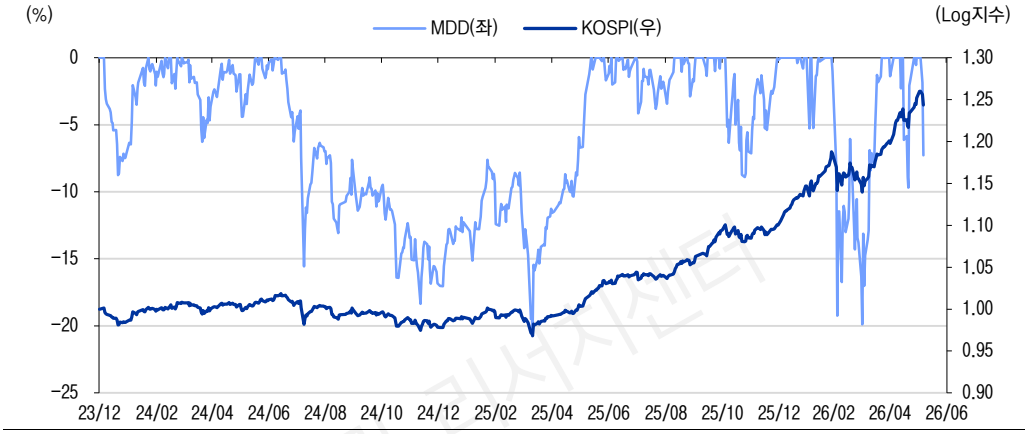
그러나 당사는 20% 이상의 낙폭을 고려하고 있다. 근거는 (1)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MDD, (2) 상방 프리미엄의 정상화, (3) 아직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들 때문이다.

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MDD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. 2019년 8월 -26.5%, 2022년 9월 -34.8%의 고점 대비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. 물론 아직 금리 인상의 본격화 여부는 불확실하지만,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쉽지 않다.

또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저점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. 당사는 최근의 주식시장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위험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다. 현재의 내재 변동성과 실현 변동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, 이번 급락에서 아직 저점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. 상방 프리미엄 고평가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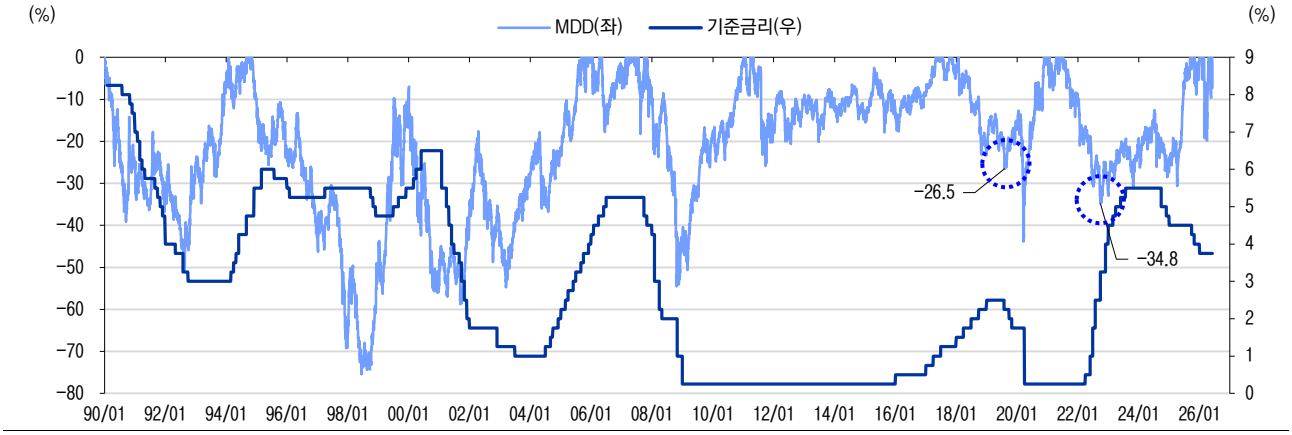
또한 지난 주 자료("쏠림에 대한 생각: 고민해볼 만한 시그널")에서 언급했던 주요 이벤트들, SpaceX 상장(6/12), 6월 FOMC(6/16-6/17), 독립기념일(7/4) 전후 미국 선거 운동 등이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

그림1 KOSPI 고점대비 낙폭(MDD):
2025 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에서는, -10% 혹은 -20% 수준에서 저점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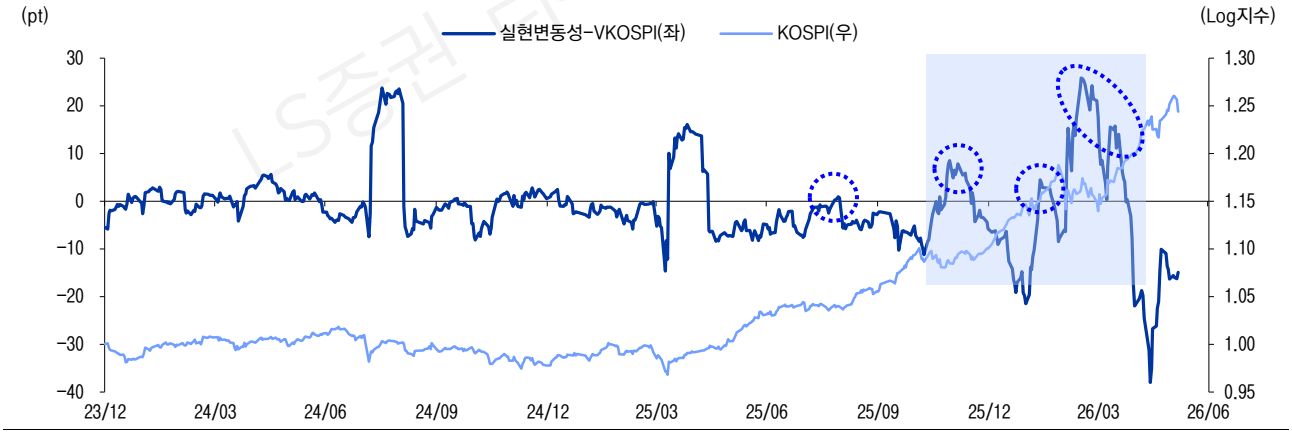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KOSPI 고점대비 낙폭(MDD)와 미국 기준금리:
그러나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20% 이상, 심지어 30%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음



자료: FnGuide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KOSPI 실현변동성과 VKOSPI 의 차이: 2025 년말 이후의 상방 프리미엄 확대 이후 정상화 과정
또한 상승 사이클 중 쉬어갈 때마다 확인됐던 VKOSPI > 실현 변동성 현상



자료: LSEG, FnGuide,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정다운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